

# ICEE '95 국제학술회의를 마치며

전재품(ICEE 조직위원장, 한전 고리원자력본부장)  
박종근(ICEE Secretariat,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정현교(ICEE 조직위원,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대한전기학회는 해마다 개최하는 하계학술대회와 더불어 국제학술회의 ICEE '95(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Engineering)를 7월 19일-21일 3일간 대전 한전전력연구원 에서 전재품 조직위원장, 당 학회 한송업 회장, 일본전기학회 회장 Kazuya Ode등 국내외 귀빈, 관계인사 및 국내외 참가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본 학술대회는 지난 94년 7월27-29일 동경에서 개최된 일본 전기학회 국제심포지움 "Power & Energy"에서 일본, 중국, 홍콩, 한국(대표: 전재품, 당시 대한전기학회 총무이사)의 4개국 대표들이 서명한 동경선언(Tokyo Declaration)에 근거해서 처음으로 국내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이때 동경선언의 주요 취지는 세계 각국의 전기 공학 관련 학계 및 산업계의 지식 및 경험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 및 세계 각국과의 기술 협력 토대의 구축이었다.

ICEE '95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규모 전기공학 전분야 국제 종합 학술대회인 만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다. 1994년 10월 이사회에서 '95년도 하계학술대회와 병행하여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기로 확정하고 10월 28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1차 운영회의를 열어 학술회의 공식 명칭을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Engineering"으로, 약자를 ICEE '95으로 정하였으며 회의 조직으로 International Steering Committee(전재품외 13인) 및 Organizing Committee(전재품외 21인)을 구성하였다. 그후 1995년 7월 14일까지 9번의 운영회의와 4번의 간사회의를 거쳐 ICEE '95 개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다.

## 1. 행사 일정

대한전기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전력공사(대표 이종훈), 일본전기학회 그리고 기초전력공학공동 연구소(소장 박영문)가 후원한 ICEE '95는 대전의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세계 10개국에서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전력계통, 전력전자, 고전압 및 전기재료와 전기기계의 4개 분야의 논문 177편이 접수되어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148편이 각각의 발표장에서 발표되었다. 특히 7.20 일 오후 4시 30분에 "Electricity & Environment"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움이 서울대 한민구 교수의 사회로 열려서 각국의 참가자들의 관심을 한데 모았다.

1995년 7월 19일 호텔 롯데 대덕에서 오후 4시 등록을 시작으로 공식 행사를 시작한 ICEE '95의 행사 프로그램은 표 1과 같다.

## 2. 등 록

아침 부터 간간히 소나기가 내려서 한여름의 더위에 얹은 습도까지 가세하여 나른한 7월 19일 오후 한전 연구원

표 1 행사 프로그램

날짜	시간	주요 행사
7.19	16:00	등록, 호텔 롯데 대역
	19:00	Banquet, 롯데 크리스탈 볼룸
7.20	08:00	등록, 한전 전력 연구원
	08:30	Opening Ceremony, 한전 전력 연구원
	09:00	논문 발표, 한전 전력 연구원
	12:10	Luncheon, 롯데 크리스탈 볼룸
	13:10	논문 발표, 한전 전력 연구원
7.21	16:30	심포지움 "Electricity & Environment", 한전 전력 연구원
	19:00	Reception & Cultural Event, 롯데 사파이어 볼룸
	08:00	등록, 한전 전력 연구원 본관
7.21	08:20	논문 발표, 한전 전력 연구원 논문 발표장
	11:30	Technical Tour (영광 원자력 발전소, 고압 765kV 시험장)

### 3. 학술 발표회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Call for papers를 우편 및 E-mail등을 통해 일본, 중국등의 아시아 지역과 유럽 및 미국등 세계 각처에 배포하였으며 일본전기학회지와 국내 전기학회지에 광고를 실어 미처 Call for papers를 받아보지 못한 분들에게 ICEE '95의 개최를 알렸다. 논문 접수 일정을 표 3에 정리하였다.

표 3 논문 접수 일정

날 짜	내 용
1995년 1월 31일	Call for papers 배포 완료
1995년 3월 1일	논문 초록 마감
1995년 5월 1일	심사결과 통보
1995년 6월 20일	논문 접수 마감

과 서울대 진행요원팀은 롯데 호텔에 등록 데스크를 준비하느라 분주히 움직였다. 등록시 나누어줄 논문집, 프로그램 및 심포지움 자료 정리, 등록을 처리할 컴퓨터 및 레이저 프린터 점검과 더불어 예비 등록자 및 귀빈들의 명찰을 준비하는 사이에 이미 등록 시작 시간이 임박하였다. 등록이 시작되자 기다리고 있던 많은 국내외 참가자들이 일제히 등록데스크에 모여들며 국내에게 학술대회보다 비싼 등록비 때문에 국내 참가자가 적을 지 모른다는 기우를 말끔히 씻어주었다. 첫날 등록자는 170명 이상이 되어 총 등록자의 279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국에서 온 한 참가자는 VISA문제 때문에 학술대회가 다 끝난 7월 25일에서야 등록하여 여느때 보다 중국의 열띤 참가 의욕을 나타내기도 했다. 국가별 참가자 및 논문 편수를 표2에 자세히 수록하였다.

등록과 동시에 논문 발표장인 한전 전력 연구원에서는 휴게실의 음료수 준비, 전날 설치한 O.H.P, 슬라이더 및 스크린, 마이크등의 설치 점검등 20일부터 시작되는 개회식, 심포지움 및 논문 발표를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기울였다.

플랭카드 및 논문 발표장등의 전반적인 대회장 준비는 한전 전력연구원이 맡아서 준비했다. 또한 대회 기록을 위한 사진 및 Video 촬영 및 녹음 시설등의 준비까지 한전 전력 연구원에서 담당하여 학회 사무국이나 진행요원들의 수고를 많이 덜 수 있었다.

표 2 국가별 등록자 수

나라	논문편수	참가자
Korea	66	192
Japan	55	68
China	18	7
U.S.A	1	1
Croatia	3	2
HongKong	1	1
Italy	1	1
Turkey	1	1
Canada	1	1
합계	148	274

올해 3월 1일 논문 초록 마감 결과 177편의 초록이 접수되었으며 당초의 예상이던 80편을 훨씬 초과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분야별 논문편수는 표 4와 같다.

표 4 분야별 논문편수

분 야	Oral	Poster	계
Power System	39	45	84
Power Electronics	7	5	12
Electric Machinery	14	8	22
High voltage & Electric Material	20	10	30
합 계	80	68	148

논문 발표는 둘째날인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한전 전력 연구원 본관 및 연구동의 4개 발표장에서 일제히 시작하였다. 발표시설의 완전한 준비 및 알맞은 조명 그리고 한전에서 특별히 배려하여 가설한 별도의 에어컨 덕분에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어 열띤 분위기속에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다.

20일 오후 2시와 21일 오전 9시에는 Poster Session이 본관에서 2시간동안 진행되었으며 논문 발표를 위한 가지 각색의 세련된 포스터가 준비되어 찾아오는 이들의 논문 이해를 돕는 동시에 눈을 즐겁게 하는 듯했다. 이 발표장에는 참석자들이 대거 몰려 Oral 발표장이 왜소해지는 느낌을 감출 수 없었는데 이는 자유로운 발표 및 토론이 가능한 Poster Session의 장점 때문일 것이다.

### 4. 심포지움 "Electricity & Environment"

20일 오후 4시 30분 별도로 준비된 Panel Session인 심포지움에서는 "전기와 환경"이라는 주제아래 한국, 일본, 중국

및 홍콩의 연사들이 초청되어 각국의 전기와 관련된 환경 산업, 각종 발전 방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이 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서울대의 한민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지움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달우 회장과 Kazuya Ode 일본전기학회 회장의 주제 발표가 있었고 Fu Shutí(중국), Otto L. T. Poon(홍콩), 김종석 환경처 대기국장, Shaw Nishinomiya(일본), 박상희 연세대 교수에 의한 Panel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논문 발표가 오후 4시 10분 모두 끝나 심포지움에 각국의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진지하게 경청하였다.

특히 심포지움에서 "Taejon Declaration"이 채택되어, 차기 ICEE를 중국전기공정학회 측에서 개최와 함께,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정보망 개설 및 공동 연구를 통한 기술 교환등을 합의 하였다.



▲ 심포지움 행사장 전경

## 5. 개회식 및 각종 행사

### 5.1 Banquet

첫날인 19일 등록이 끝난후 오후 7시 롯데 호텔 크리스



▲ Banquet에서 전재풍 조직위원장의 인사말씀

탈 볼룸에서 Banquet이 있었다.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먼길을 달려와 아직 피로가 가시지 않았지만 만나는 사람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식사와 함께 정현교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전재풍 조직위원장의 환영사를 필두로 박영문 기초전력공동연구소장, Fu Shutí 중국 EPRI 고문, Kazuya Ode 일본전기학회 회장의 만찬사가 있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충남대학교 백재연구소장에 의한 백제 문화에 대한 강연이 있었는데 백제 문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상당히 깊은 관심이 있어 모두들 진지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경청하였다.

### 5.2 개회식

둘째날 아침 논문 발표가 시작되기전인 8시 30분 본관 강당에서 개회식이 시작 되었다. 전재풍 조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ICEE의 개최 배경 및 경과를 소개하고 많이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모든 참가자들이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이어서 등단한 General Chairman 한송엽 대한전기학회장은 대전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설명하고 모든 참석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고, 박상기 한국전력공사 전무는 이종훈 사장을 대신하여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 5.3 Luncheon

둘째날 오전 논문 발표가 끝나고 학회측에서 마련한 셔틀버스를 타고 점심 장소인 롯데 호텔로 향했다. 학회 참석자 전원에게 무료로 제공된 이날 점심 식사에는 200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식사중에 한국 원자력 연구소 이창건 박사가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재미있는 연설을 하였다.

### 5.4 Reception & Cultural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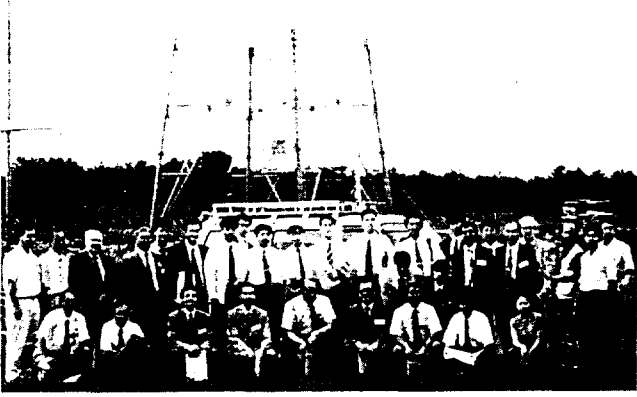
둘째날 심포지움이 끝난후 오후 7시에 롯데 호텔 사파이어 볼룸에서 국내 하계 학술대회팀과 공동으로 준비한 Reception이 있었다. 국내 학회 참가자들 비롯하여 약 100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국외 참가자들이 국내인들과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심포지움 자료를 들고 서로 토론하고 있는 유럽의 참가자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 학회에 우리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Reception이 끝나고 호텔 바로 옆에 위치한 콘서트 홀에서 사물놀이들을 비롯한 민속공연이 있었는데 300명 이상의 많은 관객이 참석하여 우리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외국인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내며 5,000년 역사를 가진 한국의 문화에 찬사를 보내었다.

### 5.5 Technical Tour

학회 마지막날 오전 논문 발표가 끝난 후 바로 Technical

## 6. 맺음말



▲ 고창 765kV 시험장에서의 기념 촬영

Tour가 있었다. 한전 전력연구원 본관에서 출발하여 영광 원자력 발전소 및 고창 765kV 시험장을 둘러보는 이 Tour에는 31명이 참가하였다. 한전 측의 안내자를 제외한 총 탑승 인원이 33명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호응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기술력이 집약된 원자력 발전소와 765kV 시험장은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모자란 점이 없었다. 영광으로 가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점심 식사가 있었으며 돌아오는 길에 동백꽃으로 유명한 선운사를 들러 휴식을 취한 후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였다.

이번 ICEE '95는 준비하는데 작년 가을 부터 시작하여 10개월이 넘는 기간이 소요됐다. 지난 89년 서울에서 개최된 IFAC 국제회의 이후 전기공학 분야에서 처음 갖는 국제학술회의로서 준비 과정상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다. 특히 국내학술 행사를 담당하는 학술위원회에서 국제회의 개최를 직접 관장하지 않는데서 오는 협조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으며,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학회 조직기구 내에 국제담당이사를 지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학회 사무국과 한국전력공사의 전폭적인 도움과 참가해주신 회원 여러분에 의해 ICEE '95를 성공리에 진행할 수 있었다. 끝으로 철저한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조직위원들과 성심껏 조언을 해주신 ISC 위원들 그리고 재정적으로 많은 후원을 해주신 기업체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이번 대회장 준비에 애써 주신 한전 전력 연구원과 진행 요원으로 많은 활약을 해준 서울대 대학원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전기학회의 성공적인 ICEE '95 개최는 북경의 ICEE '96으로 이어지고, 이는 동양권을 중심으로한 전기 공학 관련 국제학회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회원 여러분과 이러한 보람을 나누면서 보고의 말씀을 끝맺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본 대전 선언문(Taejeon Declaration)은 지난 '94년도 일본전기학회 주최 국제심포지움('94. 7. 28. ~ 29, 동경)에서 도교선언에 이어 본 학회 주최 ICEE '95 국제전기공학 학술회의 (7. 19 ~ 21, 대전)기간 심포지움에 참석한 한국, 일본, 중국의 연사 및 Panelist가 3개국간의 협력증진과 아울러 내년도에 중국에서 ICEE '96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서명한 내용이다.

## TAEJON DECLARATION

On the occasion of "Electricity & Environment" Panel  
July 20, 1995, Taejon, Korea

Electrical engineers are now in a position to further expand their own roles in this global village to benefit human welfare and social development.

All participants at the International Panel on Electricity & Environment, organized as a memorial event for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lectrical Engineering, by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declare tha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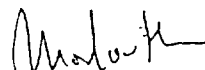
In accordance with our own faculty, we will work together to promote our joint effort of R&D activities in electrical engineering.

The following action plans are suggested through the discussions :

- (1) Technical meetings and/or panels to be held periodically by round turns of participating institutes. The meeting in 1996 to be held in China.
- (2)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information network to exchange necessary information among participating organizations.
- (3) Mutual exchange of technology through joint research projects such as "The influence of one country's pollutants emission on the environment of neighboring countries".



Shuti FU



Min-Koo 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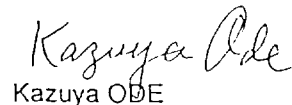
Jong-Suk KIM



Tai-Woo LEE



Shaw NISHINOMIYA



Kazuya ODE



Sang-Hui PARK



Otto L. T. POON